

“우린 손으로 대화 通해요”

수화봉사회, 손짓사랑으로 거리공연 개최

소리 없이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산불교대학 수화봉사회(회장 김훈수)는 부처님 법을 팔과 입이 아닌 손가락, 표정, 팔, 다리 온 몸에 담아 전달하는 손짓사랑모임이다. 봉축법회 및 팔관회 등 부산 경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찬불가 및 법문을 전달하고 있는 그들이 거리로 나선다. 정기적으로 매달 2회씩 사찰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리수화 공연을 갖겠다는 것이다. 첫 공연은 3월 16일 오후 2시 범어사 입구에서 마련된다.



2007 봉축대법회에서 선보인 수화봉사회 공연 모습.

수화봉사회는 부산불교대학 수화교실을 졸업한 졸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각장애우를 위한 순수 봉사 모임이다. 거리공연 및 졸업 발표를 위해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는 수화교실을 찾았다. 법당은 찬불가에 맞추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노래하는 그들의 바쁜 손짓과 부처님의 깊은 법문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거리에서 수화공연을 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자들 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주며 수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할 계획입니다. 소외받고 있는 청각장애우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려하기위한 공연이죠. 홍보하

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찰에서도 장애우들을 위한 배려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화봉사회 김훈수 회장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알려 관심을 독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우들은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이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통역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막 방송 혹은 찬불가에 맞춘 수화책도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과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화봉사회는 1000

명 중 단 한사람의 청각 장애우가 있다하더라도 어디든지 찾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소중한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산불교대학 수화봉사회는 1997년 3월 10일 제1기 수화입학생 51명과 함께 심어 회心(如心)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하우 전학장이 청각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불교와 접목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며 만들었다. 그 후 크고 작은 행사에서 공연 및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청각장애우를 위한 정기법회 및 성지순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봉사의 직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심어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봉사회로 공식명칭을 바꾸고 봉사단의 면모를 더욱 갖추고자 노력 중이다.

“수화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특수 언어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청각장애우에게 전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현재 수화봉사회는 21기를 접수중이며 수화봉사자 조정미씨의 지도로 기초수화, 불교수화, 찬불가 등으로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1)711-0108

하성미 기자

실상사 ‘바람직한 불사’ 세미나 개최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와 생명평화결사 종교위원회(위원장 김경일)가 바람직한 불사(佛事)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2월 28일 오전 10시 실상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도량불사(道場佛事)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마련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건축과)가 ‘우리나라 절 불사의 문제점과 방향’을 짚어보고 건축가 조성룡, 정기용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주제 ‘실상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는 주지 재연 스님이 직접 나서 실상사의 불사 방향을 제안한다. 도법 스님(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인대표)과 현웅 스님(해인사 주지)이 토론

에 참여한다. 세 번째 주제 ‘절과 마을’은 이경재 실상사 작은학교 교장이 발표를 하고 이원규 시인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홍선 스님(적지사 성보박물관장)과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이 각각 직지사, 미황사의 불사 사례를 발표한다. 사회는 안상수 교수(홍익대 미대)가 맡는다.

재연 스님은 “실상사는 그동안 대안학교와 귀농학교, 지리산생명연대, 절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결성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펼쳐왔다”며 “실상사 복원 불사를 ‘미재의 문화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실상사는 앞으로 2, 3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인간 사랑을 담은 긴 발자취’

최민식 사진전 개최

“내가 전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결하여 씨름하고 있는 슬프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이다. 사진 속의 아득한 시절, 아득히 먼 사람들이 내 곁으로 와서 온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들의 눈물을 뒤어주고 그들의 서러운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원로 사진작가 최민식씨는 책 <중이 얼굴 속의 슬픈 얼굴>에서 자신의 사진 주제를 이와 같이 밝혔다. 최민식 작가는 현대사의 아픔 속에 대견히 그리고 묵묵히 이겨왔던 사람들을 한결 같은 사랑으로 담아냈다. 어시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친구로, 비오는 날 신문팔이와 우산 장수를 바라보던 행인으로, 봄날



최민식씨의 작품 ‘세목없음’.

고무줄놀이 하는 소녀들의 따뜻한 삼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원로 사진작가로 현대사진의 큰 획을 그은 최민식, 그의 인간 사랑을 향한 긴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부산 해운대 고은사진미술관(관장 이재구)은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회 초대전, 최민식 사진전’을 마련한다. (051)744-3924

하성미 기자

서천 전통사찰 봉서사 붕괴위험

4년 전 개보수 건의 ‘군’ 꿈쩍안해

문화재자료 334호로 지정된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있는 전통사찰 봉서사의 개보수가 시급하다. 1988년 전통사찰 26호로 지정된 봉서사가 시설노후로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이 요구되고 있지만 서천군이 관련 예산집행을 미뤄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천군은 지난해 봉서사 개보수를 위한 국비 7900만원을 확보했지만 예산집행을 올해로 미뤄 축대와 법당 곳곳이 무너지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법당은 물론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에 이르기까지 문화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찰 진입로 주변 축대는 이미 무너졌고 대웅전의 경우 빗물이 유입돼 황토흙물이 법당 안으로 침투되고 있으며 법당 뒤쪽과 계단 등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문화재로서 면모를 잃어가고 있다. 스님들과 신도들의 휴식공간인 요사채는 문이 파손된 채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화장실 역시 정비가 안 된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봉서사 주지 심연 스님은 “군에 벌써 4년째 개보수를 건의하고 있지만 해준다고 말만 할 뿐 실질적인 공사는 실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

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천군은 봉서사를 전통사찰이라고 홍보만 했지 문화재로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봉서사 전각은 지붕도 기와가 떨어진 데가 많고 어떤 곳은 서까래가 무너질 지경이어서 빠른 개보수가 필요하다. **해철 충청지사장**

통도사 앞 고층 건물 극적 타결

높이 16층 51m로 하향 조정

통도사(주지 정우) 산문 앞에 건립 중이던 고층 콘도 문제가 원만히 회향됐다. 1월부터 타결점을 찾기 위해 몇 차례 회동 했던 통도사와 동일 건설이 2월 11일 총 높이 67m에서 16m를 낮춘 51m의 높이로 극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통도사 사회국장 진웅 스

건물은 연면적 2만8710㎡에 16층 위락시설로 자연 경관 뿐 아니라 수평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를 안고 있었다. 앞으로 통도사는 수평환경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 및 고도제한구역 설정하고 제도적 방편을 위해 양산시와 하북면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역사적 의의 깊은 명소로 재조명

‘북천사의 역사와 문화’ 발간

부산 북천사의 역사적 의의와 불모(佛母) 및 불화소(佛畫所) 흔적을 되짚어보는 <북천사의 역사와 문화>가 2월 14일 발간됐다.

북천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에서 기획하고 경성대학교 강대민 교수와 부산문화재 전문위원들과 교수들이 대거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25일 주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뒤 바 있다. 이번 발간한 <북천사의 역사와 문화>는 발표된 논문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엮은 것이다.

북천사 주지 경호 스님은 “불화를 연구하는 학자 및 후학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며 불교미술사와 항일운동 및 역사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SMD 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